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전운성



지난해 9월 유일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전운성(58) 이사장. 자신의 인생행로가 강과 같은 사행천이 되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는 지금도 자신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나누며 일을 구상하고 마음을 닦는다. 언뜻 구수한 아저씨 같은 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갈끔함과 섬세함이 배어있다. 취임 6개월에 접어든 지금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농업을 진정 리드해가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불면불휴하는 전 이사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취임하신지 6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주신다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요. 농업기술을 실용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

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긍지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된 기술을 필요한 곳에 알선 소개, 중개한다는 일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의 취지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을 직원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사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범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데요, 그 의미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재단의 설립배경에 대해 다소 오해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요즘은 걱정이나 우려의 단계를 넘어 오히려 우리 농업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큰 기대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재단

농업기술

“
**우수한 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



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농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단이 표방하고 있는 '기술을 넘어 실용화로'는 단순히 기술적 실용화적 차원이 아닌 모든 분야가 융복합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음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평생 후학 양성을 위해 교직에 몸담아 오시다 CEO의 반열에 오르셨는데 복무지침이나 경영방침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사업을 책임지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농업·농촌에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이 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재단은 직원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농업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추진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도록 여러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적역량의 수준이 곧 우리재단의 역할수

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고객을 위한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넓은 시야, 높고 올바른 사고로 현장에서 행동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수행사업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여러면에서 탄력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성 확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재단이 일을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거래 기관과 기술가치평가 기관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법률 개정 등의 요건을 갖추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된 사항이 머지않아 마무리되면 명실공히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분석검정센터 개소로 본격적인 분석검정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자재 등의 분석검정업무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우리재단의 종합분석검정센터는 이제 갖출 범했지만 시험연구에 필요한 분석업무, 농업인 및 농산업체에서 필요한 민원 분석업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분석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써 국내분석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국제적인 분석기관으로도 인정받아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등 농업에 필요한 자재와 식품 및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 사료 그리고 토양과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실용연구중심의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대학이나 농진청 등 연구기관의 연구는 실용화를 목적으로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튼튼한 기초연구 위에서 유용한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 밀착형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과 이의 보급을 위한 수요자의 발굴도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바로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을 포함하여 사장된 우수한 연구결과를 실용화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재단은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의 가교역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기술개발 트렌드를 잘 읽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농자재인 작물보호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현재 최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병들면 치료하듯 농작물도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병들면 치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농작물이 병해충으로부터 건디고 치료하는 데에는 농약

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이 나타나고, 재배방법 등에 따라 발생양상도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약효와 품질이 좋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토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약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우수한 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진설 분석검정부장, 전운성 이사장, 오홍규 분석2팀장(좌로부터)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

끝으로 우리 작물보호업계와 상호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방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1973년 발족한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농약업계를 대표하고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은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농약을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재단도 미력하나마 농약산업의 발전과 우수농약의 개발,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Y